

일본 시코쿠 지역의 임란포로에 관한 일고찰

-가가와, 도쿠시마, 고치 지역을 중심으로-

노성환*

(e-mail: nosh1@hanmail.net)

目次

1. 머리말
 2. 가가와현의 임란포로
 3. 도쿠시마현의 임란포로
 4. 고치의 조선 포로
 5. 맺음말
-
-

1. 머리말

시코쿠(四國)에는 과거에 이요(伊預), 사누키(讃岐), 아와(阿波), 도사(土佐)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에히메현(愛媛縣), 가가와현(香川縣), 도쿠시마현(德島縣), 고치현(高知縣)이다. 임란 당시 이 지역들의 영주들은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조선에 출병을 했고, 귀국 길에 많은 조선인들을 연행하여 갔다. 그러므로 시코쿠 전역에는 지금도 그들에 관한 이야기와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지역으로 잡혀간 조선인들은 조선 측의 의지와는 달리 제대로 송환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일본 측의 방해와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임란 직후 조선정부는 일본에 억류되어있는 조선인들을 송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1607년(선조40) 경섬 등을 회답검쇄환사로 보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617년 오윤겸 등을 회답사로 보내기도 했다. 이들의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역사민속학, 비교신화학

주된 사명은 국교 수교라는 외교적인 목적보다는 억류되어 있는 조선인들을 송환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코쿠 지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단적인 예로 시코쿠에도 사람을 보내어 송환해야 한다는 조선 측의 주장에 일본(대마도)측은 “시코쿠는 다만 바닷길이 멀 뿐만 아니라, 인심도 좋지 못하여, 만약 근거가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조선의 사신이 대마도 사람과 더불어 여러 곳에서 위력으로 겁주어 데려간다는 말이 쇼군(將軍)에게 들어가면 대마도에 매우 해로운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조선인을 계속해서 쇄환하는 일에도 방해가 없지 않을 것이니, 시코쿠에 보내는 것은 결코 명령대로 할 수 없습니다.”¹⁾라고 응대했다.

이처럼 그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던 대마도 측이 먼저 시코쿠는 길이 멀고, 인심도 나쁘고, 만일 그렇게 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도 방해가 심할 것이며, 그 결과 대마도 측에게도 불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며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강력하게 조선 측이 반발하며 사람의 파견을 요구하고 나서자 일본 측은 “도사(土佐) 등 여러 곳까지 두루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아와지(談路), 아와(阿波) 등 여러 곳에는 보내는 것이 무방하다”고 마지못해 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 측은 시코쿠 지역의 포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조선 측이 오사카에서 양몽린(이요=에히메의 조선포로)으로부터 아와지와 아와 지역에는 포로는 많지 않고, 이요(에히메)지역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포로들이 상당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을 믿고 양몽린으로 하여금 유시문(諭示文)과 집정의 문서를 주어 에히메 지역으로 보냈다. 여기서 보듯이 포로쇄환의 대상에서 에히메는 들어가 있었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코쿠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에 관한 것이 이 지역에서 탈출하여 귀국한 지식인들의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정희득, 정경득, 정호인 등의 기록은 아와지역(도쿠시마)을, 강항의 기록은 이요(에히메)지역의 조선인들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포로문학과 사상이라는 이름하에 기록을 남긴 사람을 중심으로 행하여온 느낌이 없지 않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이자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등한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에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령 역사학의 윤유숙은 에히메현과 고치현에

1) 이경직(1989) 「부상록」 『해행총재(3)』 민문고, p.106

형성된 임란포로 조선인들의 집단거주지 당인정(唐人町)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²⁾ 그리고 정우택³⁾과 박은경⁴⁾은 미술사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남은 조선 불화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 그리고 장한기가 도쿠시마현의 조선여인의 묘지에 대해 현장 조사한 바가 있으며,⁵⁾ 필자도 이 지역의 문헌과 현지조사를 벌여 에히메현⁶⁾과 고치현의 임란포로 박호인과 그의 후예들⁷⁾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행해졌던 범위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선행연구와 지역의 문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시코쿠 지역 중 가가와, 도쿠시마, 고치의 3지역을 중심으로 임란포로의 실태와 전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가가와현의 임란포로

가가와현은 시코쿠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장으로 임란 당시 이곳의 영주는 이코마 치카마사(生駒親正:1526-1603)이었다. 그에 관해 기록한 『생구기(生駒記)』에 의하면 임란 때 치카마사는 그의 아들 가즈마사(一正:1555-1610)과 함께 5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출병하였으며, 귀국할 때 피로인 100여명, 말 십여 필 그리고 목화 씨앗을 가지고 갔다고 되어있다.⁸⁾ 일설에는 가즈마사가 데리고 간 포로들 가운데는 도공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카마쓰성(高松城) 아래에 살면서 도자기 제작 기술을 전파시켰다고도 한다.⁹⁾ 여기에서 보듯이 이들도 다른 영주들과 같이 조선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물건까지도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미술사가 박은경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찰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불

2) 윤유숙(2009) 「근세초 서일본 지역 조선인 집단거주지」 『史叢(68)』 고려대 역사연구소, pp.116-120

3) 정우택(2008) 「일본 사국지역 조선조 전기 불화조사 연구」 『동악미술사학(9)』 동악미술사학회, pp.57-89

4) 박은경(2010) 「西日本中國・四國地域の 조선 15~16세기 佛畫考」 『석당논총(4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pp.301-335

5) 장한기(1988) 「일본 中國. 四國地方에 있는 우리의 풍속문화」 『일본학(7)』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pp.209-214

6) 노성환(2012) 「일본 에히메현의 임란포로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54)』 대한일어일문학회, pp.391-412.

7) 노성환(2012), 「임란포로 박호인 전승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55)』 한국일본어문학회, pp.235-258

8) 尹達世(2003) 『四百年の長い道』 リーブル出版, p.18

9) 四国新聞社編(1980) 『讃岐人物風景』 四国新聞社, p.161

화가 많은데 그 대부분이 임란과 정유의 왜란 때 왜군이 약탈하여 간 것이라 한다. 그 예가 미토요시(三豊市)에는 미곡사(彌谷寺)의 지장시왕도, 장수원(長壽院)의 석가육대보살십육나한도(석가설법도), 상덕사(常德寺)의 열반변상도가 있으며,¹⁰⁾ 히가시카가와시(東香川市)에는 여전사(與田寺)의 지장육광보살도, 천광사(千光寺)의 석가열반도가 있으며, 간온지시(觀音寺市)에는 관음사(觀音寺)의 지장시왕도, 연광원(蓮光院)의 약사삼존십이신장도, 보주사(宝珠寺)의 아미타팔대보살도가 있으며, 그리고 마루카메시(丸龜市)에는 내영사(來迎寺)의 서방구품용선점인회도가 있고, 켄쓰지시(善通寺市)에는 선통사(善通寺)의 진광대왕도가 있고, 또 다카마쓰시에는 옥도사(屋島寺)의 수월관음보살도, 사누키시(讃岐市)에는 보성사(宝性寺)의 시왕명부사자도가 있다.¹¹⁾

그 중 장수원의 것은 1553년에 제작되었으나, 1681년(天和1)과 1815년(文化12)에 두 차례나 걸쳐 일본에서 수리되었다. 그리고 보성사의 것은 1532-1556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탈되기 전에는 평덕리(平德里)의 어느 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덕사의 열반변상도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화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많은 전쟁으로 인해 약탈된 한국의 불화가 이 지역에 많다는 것은 임란 당시 조선으로 출병한 이 지역의 병사들이 단순히 전쟁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임란은 불교문화의 약탈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화는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찰에 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간 조선포로들은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을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코마 치카마사가 귀국 시 조선인 100여명을 강제 연행하여 갔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상으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죽어서 무덤을 남겼고, 또 그에 관련된 약간의 전승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들 무덤을 통하여 어떤 조선포로들이 이곳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카마쓰시(高松市)에는 당인총(唐人塚)이라는 조선인 무덤이 2개나 있다. 하나는 산대사(山大寺)라는 곳에, 또 다른 하나는 이이다초(飯田町)의 다나카(田中)라는 지역에 있다. 에도(江戸) 중기의 기록인 『삼대물어(三代物語)』에 의하면 전자는 이코마의 가신인 다카마쓰 타쿠미(高松内匠)가 조선으로 출병하였다가 「한인 3명을 연행 귀국하였는데, 그들이 죽어 이곳에 묻었는데, 이를 지역민들은 당인총이라 하였다」는 것이다.¹²⁾ 현재는 지역민들도 그것이

10) 貫井正之(1996) 『豊臣政権の海外進出と朝鮮義兵研究』 青木書店, p.290

11) 정우택(2008), 앞의 논문, p.84

12) 尹達世(2003), 앞의 책, pp.19-20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가라도가(唐戶家)의 묘역에 있었다. 이 묘에 대해 『고금찬기명승도회(古今讚岐名勝図會)』에 실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지역민들은 이 묘를 당인총이라고 하며,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할 때 가라도씨(唐人氏)가 한인 8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죽어서 여기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적고 있다.¹³⁾ 여기에서 보듯이 저자는 당인총이 히데요시 전쟁 때 잡혀간 조선인 무덤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곳에 살아가는 지역민들은 그의 의견과는 반대로 조선인 포로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은 다카마쓰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세운 안내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그것에 의하면 임란 때 출병한 이코마 치카마사와 가즈마사가 한반도에서 수명의 포로들을 연행하여 귀국했다. 이들 중 8명이 이이다초에 배치되어 가라도 스케무네(唐戶=唐渡資宗)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지 혹은 치욕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 지역민들은 이들을 가엽게 여겨 가라도(唐戶) 집안 묘역의 한쪽에 다 묘를 세우고 장사를 치렀다고 전해진다.¹⁴⁾ 그 후 이 무덤들은 4백 년 동안 가라도 집안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무덤의 묘비에는 “장당인팔원묘(葬唐人八員墓)”라고 새겨져 있고, 좌우면과 이면에 그 유래에 대해 적혀있는데, 마모가 심해 판독하기 어렵다. 지역민들에 의하면 이 무덤의 소유자는 이 지역에 사는 가라도 집안인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선조인 스케무네는 봉록으로 이이다 마을(飯田村)의 700석을 받는 상급무사이었다. 그는 임진과 정유의 왜란 때 조선으로 출병하였으며, 전쟁이 끝나고 조선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살하는 바람에 번으로부터 문책당하여 식록이 몰수되었다고 한다.¹⁵⁾ 또 그들은 의사의 가족이었으며, 담뱃대로 목을 찢러 자살하였다고도 한다.¹⁶⁾ 어떻게 담뱃대로 일가족이 자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관리자가 문책을 당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설명대로 의사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도 의사는 매우 소중한 인재이므로 그들의 자살은 지역에 있어서도 커다란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가와현 동부에 미키초(三木町)라는 곳이 있다. 그곳의 다카오카(高岡

13) 梶原塩水(1976), 『古今讚岐名勝図會』 歴史図書社, p.336

14) 尹達世(2003), 앞의 책, p.20

15) 高松市弦打小学校 PTA(1979), 『弦打風土記』, p17

16) 2010년 5월 5일 현지조사 때 川崎正視씨가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그 때 그가 필자에게 들려준 내용이다.

村) 마을 뒤편 백산(白山) 중턱에 조선관녀(朝鮮官女)의 무덤이 2기가 전해진다. 원래는 주변에 논밭이 있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산 쪽으로 야마자키가(山崎家)와 와타나베가(渡辺家)의 묘역 한쪽 편에 자리 잡고 있다. 2기 모두 오륜탑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높이가 약 50센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무덤이다.

일설에 의하면 그녀들은 충청도 양반가문의 출신이라고 전해지며, 그들이 잡혀올 때 7명의 남녀 하인들이 따라왔다고 한다. 그들 무덤 역시 그녀들의 무덤 좌우에 나란히 모셔져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에는 그녀들뿐만 아니라 7명의 조선인 포로가 더 있었던 셈이 된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지역민들은 오조에(大添), 고조에(小添)라고 했다. 지역에서는 이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즉, 이들은 이 지역 출신 무장인 다카오카 무네스케(高岡宗弼)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들을 일본으로 연행해 간 이코마 군대는 먼저 히데요시에게 바쳤다. 이에 히데요시는 매우 흡족해 하였으나 언어도 통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는지 이들을 다시 이코마에게 돌려주었고, 이에 이코마는 이들을 포로로 잡은 무네스케에게 맡겼다.¹⁷⁾ 이들은 자매이며, 「백미려모(白眉麗貌)의 당인(唐人)」이라고 묘사될 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의 관녀(官女)이라는 설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충청도 양반출신이 아니라 궁궐에서 일하는 궁녀 또는 관청 등에서 일하는 관기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고조에는 자식이 없었지만 오조에는 결혼하여 일본에서 낳은 자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¹⁸⁾ 그러나 어떠한 기록에도 오조에의 남편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아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들은 무네스케에게 맡겨졌고, 또 그들의 무덤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야마자키와 와타나베의 가문 묘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덤 관리를 400년 가까이 와타나베 가문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와타나베 무네스케의 측실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들이 죽자 다카오카 일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썼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유품은 다카오카씨의 후예인 야마자키씨 집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와타나베 준쿠(渡邊順久)씨에 의해 보존되어 오다가, 몇해 전 그가 사망한 후 현재는 그의 딸 고바시(小橋)씨가 관리하고 있다. 모두 40여점으로 백자 항아리와 청자주발, 젓가락, 샷갓, 머리 빗, 촛대와 그릇, 인도풍의 작은 불상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유품들 중 12점이 지난 95년 8월 서울 롯데월드에서 개최된 「한일교류 3천년 전」 때에 출품되어 전시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와타나

17) 内藤穉輔(1976)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p.740

18) 朝日新聞, 95년8월16日字

베씨 집안에서는 매년 8월 15일 두 자매와 7명의 일행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가와현에는 무덤을 통하여 임란 때 강제 연행된 조선인의 의사가 족 및 오조에 고조에라는 조선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와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도쿠시마현의 임란포로

도쿠시마현은 임란 당시 하치스가 이에마사(蜂須賀家政: 1558-1639)의 영지이었다. 그도 임진과 정유의 왜란 때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조선에 출병하고 있다. 특히 정유왜란 때는 남원성 전투와 울산성 전투에 참가했다. 울산성 전투에서는 조명 연합군에게 포위된 일본군의 구원 작전에 참가하여 아사노 요시나가(淺野幸長:1576-1613)를 구출하는 무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그가 귀국할 때 사람들은 물론 물건들도 배에 잔뜩 싣고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을 도쿠시마에 포로로 잡혀있었던 정희득은 “왜적들이 닭, 개까지 약탈하여 배에다 실었다”¹⁹⁾고 기술할 정도로 조선의 물건들을 대거 약탈하여 갔다. 정희득이 이에마사의 집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준말과 당마도 있었고, 또 임진년에 가져간 「천하여지도」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었다. 집 뜰에는 가두어 기르는 학, 거위, 기러기, 꿩 등 조선에서 가져간 여러 동물들도 있었다. 이러한 약탈물은 이에마사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신인 히코시로(彦四郎)의 집에도 조선의 명화와 족자가 있었다.

그 뿐만 아니었다. 박은경의 조사에 따르면 정흥사(正興寺)의 아미타삼존도, 지복사(持福寺)의 석가대보살도와 지장시왕도, 보수원(寶壽院)의 약사삼존도, 보광사(寶光寺)의 석가제권속도, 선각사(善覺寺)의 제석천도 등은 당시 왜군들에게 약탈된 우리나라의 불화라 한다.²⁰⁾

그 중 선각사의 제석천도는 1583년에 제작된 것으로 약탈되기 전 부여 망월산 경□사(敬□寺)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절이 탈자가 있어서 정확히 어떤 절인지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부여의 망월산에는 경용사, 보각사, 망월사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사는 그 중 경용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²¹⁾

19) 정희득(1989), 「해상록(1)」 『해행총재(8)』 민문고, p.227

20) 박은경(2010), 앞의 논문, p.306

21) 박은경(2010), 앞의 논문, pp.322-323

이같이 조선에서 약탈하여 가져간 물건들이 많았듯이 납치하여 강제로 데리고 간 사람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보았던 양몽린은 이 지역에는 조선인 포로가 별로 없다고 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었다. 실제로 도쿠시마에서 억류생활을 보냈던 정희득의 기록에는 이 지역의 조선포로는 무려 1천여 명이나 된다고 했다. 즉, 이처럼 많은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 강제 연행되어 살았던 것이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이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에 의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다. 정희득의 『월봉해상록(月峯海上錄)』, 정경득의 「만사록(萬死錄)」, 정호인의 「정유피난기(丁酉避亂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 중에서 정희득의 『해상록』은 다른 어느 기록보다 이곳에서 살았던 조선인 포로들이 많이 등장하며, 그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다소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 이 지역의 조선인 포로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것에 의하면 도쿠시마에는 기다란 강이 있고, 그 강에는 무지개형 다리가 있었다.²²⁾ 그리고 그 다리를 지나가면 만나는 열사람 중 8-9명은 우리나라 사람이라 했다.²³⁾ 이것만을 보더라도 당시 도쿠시마에는 얼마나 조선인 포로들이 많이 살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다리는 조선인들의 모여 회포를 푸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에 대해 정희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밤이면 다리 위에서 모여, 혹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며, 혹은 회포도 말하고, 한숨 지어 울부짖기도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진다. 이 다리 위는 백여 명이 앉을 만하다.”라고 서술했다.²⁴⁾

한편 『해상록』에는 조선인들의 개별사항들도 서술하고 있는데 이들을 양반과 상인을 구분하여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반출신으로는 최덕양(崔德陽), 유중원(柳仲源), 유자평(柳子平), 이승상(李丞祥), 괴산(槐山), 유여굉(柳汝宏), 하천주, 주현남(朱顯男), 정호인(鄭好仁), 임자경(林子敬=得悌), 정중, 그리고 통역인이라는 충주사람이 있었다.

최덕양의 본명은 홍건(弘建)이다. 그는 진해에서 처자와 함께 잡혀 포로가 되어 도쿠시마로 압송되어 염병으로 사망했다. 그 때 왜인들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칼을 시험한다며 갈기 받기 갈라놓았고, 이를 수습한 조선인들은 그를 강 언덕에 묻고, 제물을 바치고 울었다고 정희득은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시신은 왜인들에 의해 그야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함부로 다루어졌다.

22) 현재 도쿠시마에는 이 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케토강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현대식의 다리인 스케토바시(助任橋)라는 다리가 있을 뿐이다. 1674년(延寶2)의 기록에 이 다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희득이 말하는 무지개 다리는 바로 스케토바시일 것으로 추정된다.

23) 정희득(1989), 앞의 책, p.239

24) 정희득(1989), 앞의 책, p.239

유중원은 본명이 오(澳)이었으며, 바둑 두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유자평은 전쟁으로 인하여 아내와 아우를 잃었고, 시 짓기를 좋아하는 양반이었다.

담양출신 이승상은 육지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아내와 생이별을 하고, 어린 자식이 왜병들의 칼에 죽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도쿠시마에서는 왜인의 하인이 되어 외양간과 땀나무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양반가일지라도 왜인의 하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천주와 주현남도 그와 비슷했다. 하천주는 진주의 이름난 족벌출신이나 도쿠시마 왜인의 외양간 시중과 풀머슴으로 살고 있었으며, 주현남은 하동 사람으로 왜인 이나다 시로(稻田四郎)의 하인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를 익혀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충주사람인데, 임진년에 잡혀와 왜승에게 시중을 들고 있었다.²⁵⁾

그 밖에 정호인의 형제, 영광출신 정중, 전주출신 유여평의 형제가 있었다. 그리고 나주 사람 임자경은 교토의 이에마사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이에마사로부터 신임을 얻었는지 히데요시 사후 도쿠시마로 보내어 정희득을 만나게 하였으며, 훗날 정희득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주인의 허락이 있으면 여행도 가능했다.

그 중에는 어렸을 때 잡혀간 사람도 있었다. 그 예가 괴산(槐山)이라는 자이다. 그의 조선이름은 모른다. 다만 괴산출신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다. 그는 임진년에 8살의 나이로 포로가 되었으며, 정희득이 그를 만났을 때는 14세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조선의 양반출신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희득과 같은 조선인을 만나면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²⁶⁾

상민으로는 양돌만(梁丕萬), 덕용(德龍), 여금(女今), 후옥(後玉), 줄비(漑非), 덕남(德男), 원덕어미라는 사람들이었다. 양돌만은 역류생활에서 고국으로 탈출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노를 잘 저으며, 실제로 배를 훔쳐 탈출하였다가 도사(土佐)에서 체포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다. 덕용과 여금은 정희득의 하인이었고, 줄비는 정희득 아내의 몸종이었으며, 덕남은 정희득 부친의 하인이었다. 이같이 정희득 일가의 하인들도 다수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다. 이들은 도쿠시마에서도 주인을 잊지 못했다. 그리하여 덕용과 같이 썩을 뜯어다 정희득에게 대접을 했고, 또 줄비처럼 정희득 아내의 기일에 쌀을 얻어 제물을 마련하고 제상을 차려놓고 통곡하기도 했다. 그 밖에 후옥은 공열의 여종이었고, 원덕어미는 임박(林璞)의 여종이었다. 그 중 원덕어미는 선창가에 살았으며, 정희득 일행이 떠날 때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인물이

25) 정희득(1989), 앞의 책, p.247

26) 정희득(1989), 앞의 책, pp.238-239

다. 이처럼 이들은 같은 포로 신세이면서도 주인과 양반가들에게 봉사를 했다.

이곳으로 잡혀온 조선인들은 “모두 왜졸의 하인, 새로 간 자는 거리에서 부르짖어 때를 이루었고, 오래된 자는 왜인으로 변해서 돌아갈 심산조차 이미 없어져 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듯이 대부분이 왜인들의 하인이 되었으며,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울부짖었고, 오래된 사람은 일본에 동화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로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보내어도 형제와 처자를 서로 갈라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평과 서로 헤어질까 두려워 늘 자평을 내 아우라 하였다”는 기술처럼 가족들은 한 곳에서 살게 했던 것 같다.

한편 정희득과 같은 양반들은 그의 지식을 인정받으면 비교적 행동에 자유로웠다. 정희득 자신도 지역의 영주인 이에마사 그리고 지역의 명사인 동악선사(東岳禪師), 장연(長延), 이암(理庵), 호조 켄파치(北條見八) 등과 활발히 교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협조도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끼리 산성의 누각에도 올라 가을을 감상하기도 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용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베껴 쓰는 작업을 했다. 여기에 대해 정희득은 “글품을 팔아서 얻은 은전으로 배를 사서 환국할 계획을 하자니, 이 짓 말고 다시 한 푼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그 괴로움을 참아야 했다.”고 표현했다.²⁷⁾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것은 상민보다 양반계층이 더 심했던 것 같다. 그 단적인 예로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를 탄 정희득 일행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정희득의 가족(정경득, 정정, 정응), 유오, 주현남, 정중, 유여평 형제, 정호인 형제 모두 12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민은 단 1명도 끼어있지 않은 것이다.

돌아가더라도 생활의 기반이 있는 양반들은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상민들은 사정이 다르다. 앞에서 본 “모두 왜졸의 하인, 새로 간 자는 거리에서 부르짖어 때를 이루었고, 오래된 자는 왜인으로 변해서 돌아갈 심산조차 이미 없어져 버렸다.”²⁸⁾라는 내용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달픈 하인생활로 시작되지만, 일본생활에 익숙해지고 생활의 기반이 다져지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다. 귀국에 있어서도 생활의 기반과 신분계층이 중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일본 측에는 조선인포로에 관한 사료가 풍부한 편이 아니다. 이들

27) 정희득(1989), 앞의 책, p.254

28) 정희득(1989), 앞의 책, p.295

의 사료에 기재될 경우에는 대략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전투요원(병사)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포로가 된 경우와 그것과 관계없는 비전투요원이다. 물론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1815년의 문헌인 『아파지(阿波志)』의 「한인묘(韓人墓)」라는 항목에 “임진년 조선 전쟁 때 잡은 3명의 한인을 니키 마타고로(仁木又五郎)에게 주었는데, 이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것(文祿中朝鮮之役獲韓人三人賜之仁木又五郎死葬于此)”²⁹⁾이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임란 때 잡아간 한인 3명은 전투요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난시(阿南市) 아라다노초(新野町)의 신궁사(神宮寺)에도 조선포로들의 무덤이 있다 하고, 또 『아담연표비록(阿淡年表秘錄) “가다야마 한베(片山半兵衛)가 포로 1명과 더불어 철포 2정을 획득했다”³⁰⁾고 한 조선인들도 병사 혹은 민간인이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조선의 병사들임에 틀림없다. 『아주기담잡화(阿州奇談雜話)』 <권2>에 “하치스가의 수군 대장이었던 모리 진고베(森甚五兵衛=森志摩守)가 조선의 병사를 잡아와 자신의 가신으로 삼았다”³¹⁾는 것처럼 자신들이 잡은 조선병사는 부하로 삼았다. 그러한 예는 「미마여칠랑가성립서(美馬與七郎家成立書)」에서도 보인다. 즉, 목수이었던 미마스카베이(美馬助兵衛)의 아들인 미마요시치(美馬與七)가 임란 때 조선으로 출병했다가 귀국 시 데라고 간 2명의 포로를 자신의 부하로 삼아 자신의 마을에 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³²⁾ 이처럼 하급 병사들은 그들을 잡은 무사들의 부하가 되기도 했다.

그에 비해 장수급은 포로로 잡혀 일본에 갔어도 무사로서 변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예가 『목촌총괄가가계도병성립서(木村惣八家系圖并成立書)』에 보이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조 영순은 삼한 충주의 성주이며, 히테요시공(秀吉公)이 삼한에서 개선하였을 때 포로가 되어왔다. 그 후 도쿠시마에 거주하며 준덕원(俊德院)이 기무라 소이치우에몬(木村惣市右衛門)이라고 하였으며, 그의 3남인 가지베(加次兵衛)는 흥원원(興源院) 때에 사무라이가 되어 3인 부지, 봉록 8석을 하사했다. 그리고 에도로 왕래할 때도 동행케 하였으며, 집도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는 1664(寬文4) 6월 9일에 병사를 했다.³³⁾

29) 『阿波志』 <卷10> 「勝浦郡」 「塚墓」

30) 内藤寯輔(1976), 앞의 책, p.755

31) 内藤寯輔(1976), 앞의 책, p.754

32) 内藤寯輔(1976), 앞의 책, p.755

33) 内藤寯輔(1976), 앞의 책, pp.754-755

여기에서 보듯이 기무라 소이치우에몬은 포로가 되기 전에는 충주의 성주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주란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상당한 고위직을 가리키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그의 아들 가지베가 3인 부지와 봉록, 집을 받는 무사가 되었듯이 그도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무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왜군에게 항복한 자는 더욱더 그러했다. 그러한 예가 『아담연표비록(阿淡年表秘錄)』에 있었다. 그것에 의하면 “1593년(文祿2) 진주성을 함락할 때 조선인 고신(高信)이라는 자가 항복하여 왔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아두었다가 귀국할 때 데리고 와서 측근에 두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오니하루 우에몬노부마사(鬼治右衛門信正)에게 5인 부지를 내렸다.”³⁴⁾고 되어있다. 이처럼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항복한 무장들이 일본에서 무사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왜군에게 협력한 조선인 병사들도 있었다. 이들도 일본에서 무사대우를 받았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도쿠시마시의 남쪽 오하라초(大原町)에 가고(籠)라는 마을이 있다. 일찍이 언론인 김승환은 이 마을은 지역의 영주 하치스가가 강제로 수많은 불모 등을 정주시킨 곳이라고 그의 저서를 통해 소개한 바가 있다.³⁵⁾ 그러나 그는 어떠한 조선인 포로들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흔적을 지역문헌에 찾을 수 있다. 먼저 『아과번가계도병성립서(阿波藩家系圖并成立書)』에 의하면 “문록 2년 조선에 귀국할 때 조선인 2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서운원(瑞雲院)이 이들을 도쿠시마에 살게 하였는데, 그들이 지금 가고가와구치(籠川口)의 어번인(御番人)을 하고 있는 오바마 와나이(小濱和內)와 오쿠야마 요우에몬(奥山要右衛門)의 시조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곳에 조선인 두 명이 포로가 살았는데, 그들이 오바마과 오쿠야마 가문의 시조라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아과연표비록(阿波年表秘錄)』에도 “항사 마고우에몬(孫右衛門)이 조선인 2명을 생포하여 이들 모두 데리고 왔다. 그들이 지금 가고구치(籠口)의 어번인(御番人) 오바마씨와 오쿠야마씨의 시조이다. 그 후 마고베이가 죽고 적자인 후지자에몬나오무네(藤左衛門直宗)가 나이가 어려 봉록 500석 중 300석 정도를 내렸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이상의 두 문헌에서 확인되듯이 이곳 가고 마을에는 두 명의 조선포로가 있었으며, 그들의 후예가 오바마와 오쿠야마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왜군들에게 연행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 지역문헌인 『봉수하가가신성립서(蜂須賀家家臣成立書)』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34) 内藤穉輔(1976), 앞의 책, p.755에서 재인용.

35) 김승환(1979), 앞의 책, p.248

있다. 그것에 의하면 조선에 출병한 하치스가 이에마사가 어느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 심한 비바람을 만나 5일간 그곳에서 머물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때 카한성의 성주가 수척의 배로 이에마사를 안내하여 후견성(厚見城)을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귀국할 때 성주의 부부를 데리고 왔으며, 오바마 요쿠로(小濱與九郎)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의상 한 벌을 하사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자손들이 원하면 무사대접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에마사는 그 사실을 기록을 남겨두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자신의 성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 후 그는 이에마사로부터 황무지를 개간하라는 명을 받고 오하라우라(大原浦)의 가고지역에 가서 개척하였고, 또 매월 3번씩 성으로 가서 인사를 올렸고, 그 때마다 요리가 제공되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그는 장수하여 이에마사의 손자인 하치스가 다다테루(蜂須賀忠英:1611-1652) 때까지 살다가 98세의 나이로 일기를 마쳤다. 그 후 그의 자손들은 가고의 번소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⁶⁾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이곳에 처음으로 산 사람은 오바마의 시조 부부와 오쿠야마의 시조 모두 3명이었다. 이들은 위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그들은 포로가 아니며 그와 반대로 왜군의 조력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번소란 하구에 출입하는 배를 점검하고 통행세를 징수하는 일종의 검문소와 같은 관청이다. 조선인의 후예 오바마와 오쿠야마 두 집 안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사로서 근무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이들의 묘역에는 자신의 뿌리를 밝힌 묘비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 중 한 예가 “高麗카한(キャハン)城主, 山田應天國千天王末孫, 奥山要右衛門妻, 奥山與五郎母, 行年八十六歲, 俗名奈加”라는 것이 있고, 또 8대의 묘비에는 “8代目高氏, 俗名與五郎”이라고 새겨진 것이 있다.³⁷⁾ 여기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그들의 시조는 고려 카한성주이자, 산전웅천국천천왕의 후손이며, 또 실제의 성은 고씨(高氏)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카한성은 어디이며, 또 산전웅천국이라는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592년 이에마사가 이끈 아와군은 부산상륙웅천함락 충주를 거쳐 창원에 주둔하고 있었던 점을 참고하면 카한은 창원이며, 산전은 산청이며, 웅천국은 웅천(熊川)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의 신분이 조선의 성주이었다는 것은 가계를 윤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하튼 이상의 예들은 왜군에 협력한 조선의 장수와 병졸들은 일본에서도 무사의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하겠다.

36) 内藤寯輔(1976), 앞의 책, p.753

37) 内藤寯輔(1976), 앞의 책, pp.749-751

한편 『아담연표비록』에 구라치 요시히사(倉知由久)가 “관녀 1인, 몸종 1인을 목숨을 구하여 데리고 와서 부하에게 주었다.”³⁸⁾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녀란 궁녀, 관기, 의녀, 또는 관리의 딸인지 알 수 없으나, 여인들도 연행해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일본 사무라이와 결혼하는 사례가 많다.

도쿠시마 뉴타초(入田町) 곤지(金治)라는 곳에 관정사(觀正寺)라는 불교 사찰이 있다. 이 사찰의 묘역에 조선여인의 무덤 1기가 있다. 그녀의 묘비에는 “관문 6년병오8월27일, 청월묘천대자, 원조무시손조실, 고려관녀야(寬文六年丙午八月二十七日, 淸月妙泉大姉, 元祖武市孫助室 高麗館女也)”라고 새겨져 있다. 즉, 1666년(관문6년) 8월27일에 세워진 이 묘비에 의하면 그녀가 조선에 있었을 때의 신분은 관녀였으며, 왜군에 의해 납치되어 일본으로 가서는 다케이치마고스케의 측실이 되었으며, 사망한 후에는 사찰에서 받은 법명이 청월묘천대자이었다.

나이토 슌포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인 다케이치 마고스케(武市孫助)는 1594년(文祿3) 하치스가 이에마사의 군대에 소속되어 조선으로 출병하였으며, 귀국할 때 13, 4세의 소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으며, 그녀는 1666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³⁹⁾ 그 무덤이 이 절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61년 이후이다. 당시 지역신문인 도쿠시마신문(德島新聞)의 기사에 의하면 새로운 사실이 적혀있다. 즉 “이 절(觀正寺)의 『과거장(過去帳)』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인 다케이치 마고스케는 아와번의 사무라이이자 뉴타지방의 향사(郷士)이었으며, 또 『봉수하연암공전(蜂須賀蓮庵公傳)』에는 1594년 조선출병 때 조선 여인 2명을 연행하여 왔다. 그중 1명은 일본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차별을 받아 참지 못하고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였으며, 다른 한명은 마고스케의 아내가 되어 이름을 오후쿠(お福)라고 일본 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다케이치가 연행해온 조선여인은 2명이 있었으며, 그 중 한명이 마고스케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이름을 오후쿠라고 한 조선여인은 85세까지 장수하여 생애를 마감했다. 그녀의 비문에는 「청월묘천대자」라는 법명과 함께 고려관녀였다는 조선의 신분도 함께 새겨졌다. 아마도 관녀란 일반 여성과는 다른 궁녀이거나 관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명의 여인으로 추정되는 조선여인의 묘지가 관정사에서 약 7백미터 떨어진 아유쿠이가와(鮎喰川) 변에 있으며, 지역민들의 말에 따르면 무덤 속에는 황금옷과 많은 보화가 들어 있었으며, 묘비에는 “이 사람은 조선에서 온 사람으로 속명은 전요복(田要福)이다”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⁴⁰⁾

38) 内藤篤輔(1976), 앞의 책, p.755

39) 内藤篤輔(1976), 앞의 책, p.754

40) 장한기, 앞의 논문 p.213

한편 영주(성주)의 측실이 된 조선여인은 또 있었다. 도쿠시마현 북동부에 위치한 곳에 요시노가와시(吉野川市) 가와시마초(川島町)의 시로야마(城山)에 있는 조선녀(朝鮮女)이다. 여기에 대해 김달수는 단순히 임란 때 연행된 조선여인의 무덤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⁴¹⁾ 언론인 권태명은 이곳을 방문하여 2000년에 새로 세운 오륜탑 형식의 조선 여인에 대한 묘지를 확인하고, 그녀는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이곳 성주 가와시마 고레다다(川島惟忠)의 귀국할 때 데리고 온 여인이었다고 했다.⁴²⁾ 그러나 고레다다는 1579년(天正7)에 와키성(脇城) 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임란 때 조선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녀를 데리고 간 사람은 고레다다가 아니라 하야시 요시카쓰(林能勝=林五郎兵衛:1534-1616)였다.

요시카쓰는 하야시 도칸(林道感)으로도 불리운 인물로 하치스가로부터 봉록 5540석을 받는 가로급(家老級)로서 하치스가 이에마사가 조선으로 출병할 때 함께 했던 것이다. 귀국 시 그는 조선인 여성 1명을 납치 연행하여 데리고 가서 측실로 삼았는데, 바로 이 여인이다. 불행히도 그녀는 두 딸을 낳고 그만 병을 얻어 일찍 죽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을 안 지역민들이 1926년(大正15)에 그녀의 남편이 거주했던 성안 공원에 “조선녀”라고 새겨진 조그마한 묘비를 건립했다. 그리고 지역의 시인인 시노하라 마사이치(篠原雅一)가 “碧海千里空異國寒月澄淚難止, 哀愁幾歲偲故鄉安歸依一詩獻”라는 내용의 한시를 지어 바쳤다.

2000년 지역민들은 다시 묘지를 조성하고 “여인의 고국을 사모한 절절함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는 내용이 적힌 비석을 새롭게 세웠다. 이처럼 당시 주민들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녀를 위해 무엇 때문에 묘비를 세웠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아마도 낯선 이국땅에 끌려와 병이 들어 죽은 불쌍한 조선녀의 기록과 전승이 그들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4. 고치의 조선 포로

고치의 영주 초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1539-1599)는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1561-1624), 하치스가 이에마사와 함께 제5번대에 편성이 되어 조선으로 출병했다. 당시 제5번대는 총2만5천여명이었으며, 그 중 모토치카는 3천여명의 군사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초소카베 군대는 사천성(四川

41) 金達壽,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11) -阿波, 土佐(徳島県, 高知県)-(2)」 『季刊 三千里(40)』 (三千里社. 1984年) p.222

42) 권태명(2012) 『한민족이 주도한 고대 일본문화』 시대정신, p.388

城)과 웅천성 전투에서 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조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 본국으로 송환을 했고, 또 귀국할 때는 380여명의 조선인들을 잡아갔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조선포로들이 살던 곳으로 도진마치(唐人町), 도진야시키(唐人屋敷)라는 지명이 남아있으며, 또 이들이 농사를 지었던 곳이 도진바다케(唐人畑)라는 이름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기록과 전승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나 국내 측 기록에는 노인(魯認)이 있고, 일본 측 기록에는 조선인 의사 경동(經東)과 조선국녀(朝鮮國女)가 엿보인다. 노인은 고국으로 돌아온 자이지만, 경동과 조선국녀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었다.

노인(1566-1622)은 본관은 함평이며, 나주의 선비이다. 그는 1582년 진사과에 합격하고 관직에 올랐으며, 임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권율의 휘하에 들어가 전공을 세웠으며, 1597년 남원성이 함락될 때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억류 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탈출하여 1600년에 고국으로 귀환한 자이다. 그는 자신이 포로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저서로 남기고 있는데, 그것이 『금계일기』이며, 『금계집』이다. 금계는 그의 호이다.

이 중 『금계집』에 의하면 그는 순천 방납호에서 왜군에게 결박되어 일본의 치쿠젠(筑前), 후젠(豊前)의 나카쓰(中津)를 거쳐 이요(伊豫)의 아케나(浮穴)에 억류되었다가 도사에 잠시 머무른 후에 오늘날 가고시마인 사쓰마(薩摩)로 가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탈출한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그가 도사에 머물고 있었을 때 도쿠시마의 정희득과 편지를 몇 차례나 주고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희득의 『해상록』에 의하면 무술년 9월 9일의 일기에 “어떤 왜인의 전하는 말에 노인이 도사(土佐州)에 산다 하기에 그 왜인의 편에 편지를 한통을 부쳤더니 뒤에 그 답을 보았었다.”⁴³⁾고 적혀있는 것이다. 그 때 노인과 정희득이 서로 주고받았던 시문이 『해상록』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은 “호접은 황홀하여 참이 아니라 말하지 말라, 너 아니면 어떻게 내 어버이 뵈울 수 있으리, 밤마다 물결 넘어 고국으로 돌아가노니, 여창에 찾아온 줄음 못내 사랑하노라”라는 시를 정희득에게 보냈다. 밤마다 꾸는 꿈을 통하여 자신이 나비가 되어 바다를 건너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꿈은 귀국과 연결되어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줄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장자의 나비이야기를 연상케 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정희득은 “봉함을 뜯으매 마치 친구 얼굴 보는 것 같은데, 두 늙은 어

43) 정희득(1989), 앞의 책 pp.253-254

버이를 생이별한 그대가 오히려 부러워라, 다 함께 나그네 되어 서로 만나지 못하니, 그리운 마음 한밤의 꿈만 바쁘네”라고 화답을 했다. 정희득은 왜군에게 잡힐 때 모친, 형수, 아내, 누이 등 4명이 모두 정렬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거두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들의 처지는 고사하고, 양친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노인에게 보내며, 꿈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현실성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또 노인은 또 “만 번 죽다가 살아남은 나그네, 타향에서 외로이 슬퍼하네, 어버이 생각에 피눈물 흘리며, 임금님 그리워 타는 간장, 입 연들 그 누가 말을 알며, 회포 적은들 누가 재주 사랑하리, 의의히 쓸쓸한 그림자 괴로운데, 바람과 별마저도 시름을 중매하네”라 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도사에서 억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양반지식계층들은 억류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왜인들을 통하여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동(經東)은 고치에서는 전설적인 명의(名醫)로 통한다. 그가 살았던 곳은 도사(土佐)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임진과 정유의 왜란 때부터 한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민들도 히데요시에 의해 조선으로 출병된 관계로 이곳에서 심심찮게 임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마우치 시치로베(山内七郎兵衛信秋)의 아내 이야기와 조선인 명의 경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야마우치 시치로베는 이 지역의 구보가와시게구시(久保川茂串)라는 작은 마을의 성주이었다. 그가 조선으로 파견되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혼이었는데, 웅천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이에 실망한 그의 아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지역은 임란과 관련된 슬픈 이야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인 경동은 1593년 임란 때 초소카베 모토치카에게 포로가 되어 도사에서 정착한 자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에도시대에 있어서 도사번(土佐藩)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집대성한 『개산집(皆山集)』(제5권)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것에 의하면 조선에 있을 때 그는 죽을병도 고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키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를 지역의 보배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그였지만 도사에 정착한 후 1년 동안은 병을 고치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다. 그리하여 지역민들은 그를 두고 외국에도 저러한 엉터리 의사가 있다고 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놀려댔다. 경동은 이에 크게 부끄럽게 여겼으며 또 근심에 빠져 잠시 칩거생활에 들어가 밤낮으로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어느 날 그는 조선과 일본은 토양이 틀리며, 또 인성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것을 감안하여 약을 지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러자 그의 명성은 다시 유명해졌다고 한다. 『개산집』은 그가 얼마나 유명한 명의이었는지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은 3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임신부의 진맥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어느 집에 초대되어 임신부를 진맥했다. 경동이 복맥을 짚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사내아이인데, 3살 때 역병을 앓을 것이다. 지금 임신부가 약을 복용하면 그때가 되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며 “옛날 편작(扁鵲), 순우위(淳字意)과 같은 신선들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물며 오늘날의 의사가 그러한 의술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하며 화를 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여 경동을 비웃으며, 욕을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윽고 달이 차고 아이를 낳았는데, 과연 그의 예견대로 여인은 사내아이를 생산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살이 되던 여름부터 안색이 변하여 병색이 만연하더니 3살이 되던 봄부터 역병의 증세를 띠기 시작했다. 부모는 이에 크게 놀라고 경동을 찾아가 사정을 하며 약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경동은 역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 음양의 기운이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태중에 있었을 때 약을 복용하였다더라면 깨끗이 나왔을 것을 발병한 후에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하며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 그 후 아이는 얼마 있지 않아 죽었다.⁴⁴⁾

둘째는 어느 소녀의 진맥 이야기이다. 5, 6살 된 어느 소녀가 왼쪽 발 뒷꿈치가 가려워 손톱으로 끌었더니 피부에서 작은 흰 돌이 나왔다. 이에 부모가 깜짝 놀라 경동을 찾아가 보였더니, 경동이 “앞으로 이같은 돌이 또 하나가 더 나올 것이다.”하였다. 그의 말대로 며칠 후 또 한 개의 돌이 나왔다. 그리하여 부모가 다시 경동을 찾아가 물었더니 “이 돌은 사람 몸 안에서 돌다가 어깨를 넘어가면 불치의 병이 된다. 그러나 이 돌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장수할 징조이니 90살까지는 아무 탈 없이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그 아이는 일생동안 무병하였으며, 9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⁴⁵⁾

셋째는 경동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곳의 영주인 모토치카도 경동을 매우 신뢰했다. 그리하여 히데요시가 있는 교토(京都)로 갈 때는 반드시 그를 데리고 갔다. 그에 따라 그는 교토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났으며, 그곳에서도 그의 의료 활동도 계속되었던 것 같다. 그의 의술은 교토에서도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질투를 느낀 교토의 의사들이 연회에 경동을 초청하여 음식에 독을 타서 먹였다. 경동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차

44) 平尾道雄外 4人 『土佐之國史料類纂 皆山集 (第5卷) -歴史編-』(高知県立図書館, 1976年) p.40

45) 平尾道雄外 4人, 앞의 책, p.41

리고 말하기를 “이 정도의 독이면 해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날 반드시 그대들이 번득이는 칼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이 독으로 내가 죽으마.”하고 말하고, 품속에서 1권의 서책을 내더니 “이것은 만민을 구하는 비전이다. 일본에 전해지는 것이 한이 남는다.” 하며 불 속에 던져 넣어 태워버리고는 자신도 숨을 거두었다.⁴⁶⁾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 명의 경동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전설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도사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명의이었으며, 그의 명성이 너무나 유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동이 불행하게도 교토의 의사들에 의해 독살 당하였지만, 그의 의술은 그 이후에도 도사에 전해졌다. 그 장본인은 그의 제자 고가와 하루요(粉川春与)이었다. 그는 원래 기이(紀伊)의 분하사(粉河寺)의 승려이었으나 모토치카의 빈객이 되어 누노시다무라(布師田村)에 살았을 때 경동에게 의술을 배웠으며,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였다.⁴⁷⁾ 이로 인하여 하루요의 7대손 고가와 겐초(粉川玄晁)는 경동이 직접 쓴 의안(医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문이 『토좌기인전(土佐畸人伝)』에도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고지현사고대중세사료편(高知縣史古代中世史料編)』에도 고가와 개인 소장인 경동에 관한 고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같이 경동은 포로가 되어 일본에서 활약하다가 독살당하는 불운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닌 조선의 의술은 제자를 통하여 일본에 뿌리를 내려 활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국녀(朝鮮國女)라고 불리는 여인이 구로시오초(黒潮町)에 있었다. 이곳은 2006년 3월 오가다초(大方町)와 사가초(佐賀町)가 합병하여 생겨난 새로운 행정구역이다. 그 중 오가타 지역에 조선국녀의 무덤이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적한 국철의 가미가와구치(上川口) 역에서 내려 마을 쪽 아닌산 쪽으로 난 굴다리를 통과하면 오다니(小谷) 가문의 묘역이 나오는데, 그곳에 조선국녀라고 새겨진 약 50센티 정도가 되는 높이의 자그마한 돌이 서 있는 것이다.

묘석의 앞면에는 “조선국녀(朝鮮國女)”라고 되어있고, 우측면에는 천정연간(天正年間: 1573-1583)에 이곳에 왔다는 의미인 “천정연중래(天正年中來)”라고 되어있고, 좌측면에는 사망한 해를 모른다는 의미인 “졸년부지(卒年不知)”라고 새겨져 있다. 이 말 그대로라면 그녀는 조선국 출신의 여인으로서 천정연간에

46) 平尾道雄外 4人, 앞의 책, p.41

47) 内藤篤輔(1976), 앞의 책, p.746

이곳으로 와서 살다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임란도 일어나기 전에 이 여인이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다.

이같이 새겨진 내용을 가진 조선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일본으로 갔으며,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여기에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세기 초 문화연간(文化年間)에 출간된 『토좌향토지료(土佐郷土志料)』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에 의하면 이 지역의 토호인 오다니 요슈로(小谷與十郎)가 임란 때 이 지역의 영주인 초소카베 모토치카의 휘하에 들어가 조선으로 출병하였으며, 귀국 때 한명의 조선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있다.⁴⁸⁾

대부분의 지역 사료에서는 1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⁴⁹⁾ 지역의 전승에 의하면 요슈로가 연행한 여인은 처음에는 3명이었다고 한다. 한명은 조선국내에서도 망쳤고, 또 한명은 일본으로 끌려오던 도중 배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으며, 나머지 한명이 바로 이곳에 묻혀있는 조선국녀라는 것이다.

그녀는 용모도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를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즉, 직녀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마음씨도 상냥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전해준 기술로 짠 베는 매우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세련된 것으로 흔히 ‘혼젠(本絹)의 츠무기오리(織)’라 하였으며, 그 전통이 근대까지 이어졌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애를 마감했다. 사후 처음에는 가미가와구치 마을 계장사(桂藏寺)의 오다니 가문의 묘역에 안장되었다. 묘비를 세운 것은 요슈로의 4대손인 오다니 야스지(小谷安次)이었다. 그는 의사로서 역사에 정통한 문인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한 그가 그녀의 묘비에 ‘天正年中來’라고 새긴 것은 자신의 조상이 임란과 정유의 왜란 때 강제 연행해 온 뼈아픈 역사를 감추고자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녀의 묘비가 현재 이곳에 있는 것은 계장사의 묘역이 도로공사로 인해 사라지게 되자 오다니가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 묘비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그것이 알려진 것은 80년대 초반 나카무라시에 사는 오카무라씨가 지역신문인 고치신문(高知新聞)에 “어떤 조선인 여성의 표석”이라는 투고한 한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그것은 방향의 한을 안고 이국땅에서 숨을 거둔 고독한 조선여인의 영혼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48) 寺崎宗俊(1993) 『肥前名護屋城の人々』 佐賀新聞社, p.213

49) 高知県高等学校教育研究会歴史部会(2006) 『高知県の歴史散歩』, p.252, 大方町史改訂編纂委員会(1994) 『大方町史』 大方町, p.208

이것을 계기로 1981년 7월 제일조총련 고치현 지부 그리고 전 오가다초장(大方町長)을 역임한 오노가와 준지(小野川俊二)씨 등 일본관계자들이 「조선국녀의 묘를 지키는 회」를 결성하고 방치해둔 묘역을 정비하고 이 여인의 내용이 담긴 비문을 새롭게 묘역에 세웠다. 비문은 당시 고치대학(高知大學)의 교수 세키다 히데사토(關田英里) 회장이 썼는데, 그는 이것을 통하여 비운의 조선여성의 영혼을 위로하고 한일 양 민족의 우호와 연대를 맹세한다고 했다.⁵⁰⁾

오노가와씨는 이 조선여인을 주제로 “죽음보다 가혹하게 살다”는 장편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의 마지막에는 “하늘은 어디까지 푸르고 높고, 태양은 어디까지나 붉게 빛나고, 조선국녀묘에 묻힌 영혼이여, 그대도 태양과 같이, 여기에 윤희를 굴레를 묶여,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도다.”라고 하였다. 그 후 매년 가을 길일을 택하여 이 여인의 위령제를 지내고 가미가와구치 집회소(上川口集會所) 등에서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우호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고치에 있어서 조선인 포로들은 경동과 조선국녀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아키시(安藝市)의 향토요리 도토리묵을 들 수가 있는데, 이곳 지역민들은 이를 “가시키리” 또는 “가시 토후”라 하며 1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만들어 마늘잎과 된장과 함께 곁들여 먹는다. 그렇게 해야 제 맛이 난다고 지역민들은 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먹지 않는 마늘잎마저 곁들여 먹는 것에서 보듯이 이러한 식습관은 이곳에 살던 조선인들이 전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작지가 적었던 산간지역에서는 구황식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아키의 도토리묵에서 보듯이 이름을 남기지 않은 임란포로들이 고치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가가와, 도쿠시마, 고치 등지에서도 조선인 임란포로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조선에서 가져간 조선불화뿐만 아니라 닭, 개, 말, 학, 거위, 기러기, 꿩과 같은 동물 및 지도와 그림 등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다. 즉, 사람뿐만 아니라 희귀한 문화재들도 아낌없이 약탈하여갔던 것이다. 특히 사람인 경우 병사들은 물론 남녀 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한 일반인들을 가리지 않고 연행해 갔다. 그에 따라 본

50) 大方町史改訂編纂委員會(1994) 『大方町史』 大方町, pp.208-209

의 아니게 이곳에서 시코쿠에서 살아야 했던 조선인 포로생활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욕망은 양반계층일수록 높다는 사실이다. 도쿠시마의 정희득의 예에서 보듯이 그들이 돌아오는 배에 탄 대부분이 양반들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귀국에 대한 희구가 고국에 있어서 사회경제에 대한 보장성 확보의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에 대한 보장성이 희박하고, 더군다나 일본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활기반이 이미 일본에서 내린 사람들이 귀국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둘째는 글을 할 줄 아는 선비계층들은 일본인을 매개로 한 타 지역과의 서신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도쿠시마의 정희득과 도사의 노인이 서로 주고받은 서신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미약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셋째는 문화의 전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예로 경동은 의술을, 고치의 조선국녀는 직조기술을, 그리고 고치의 조선인들은 두부와 도토리묵의 제조법을 각기 전하였던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밖에도 그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가 일본사회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전쟁을 통한 강제적인 인적교류가 문화의 전파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임란은 노예의 전쟁이자 문화약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넷째는 이들의 인생에 동정하여 이들의 넋을 기리며 임란(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일인들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경우가 여성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가와와 오조에, 고조에, 고치의 조선국녀, 도쿠시마의 조선녀, 고려관녀, 전요복이다. 이들을 위해 지역민들은 비를 세우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날을 정해 제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씨앗이 되어 한일양국의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커다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 권태명(2012) 『한민족이 주도한 고대 일본문화』 시대정신, p.388
- 김승환(1979) 『일본에 심은 한국(1)』 중앙일보사, pp.223-253
- 노성환(2012) 「일본 에히메현의 임란포로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54)』 대한 일어일문학회, pp.391-412
- 노성환(2012) 「임란포로 박호인 전승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55)』 한국일본어문학회, pp.235-258
- 박은경(2010) 「西日本中國・四國地域の 조선 15~16세기 佛畫考」 『석당논총(4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pp.301-335
- 이경직(1989) 「부상록」 『해행총재(3)』 민문고, p.106
- 윤유숙(2009) 「근세초 서일본 지역 조선인 집단거주지」 『史叢(68)』 고려대 역사연구소, pp.116-120
- 장항기(1988) 「일본 中國. 四國地方에 있는 우리의 풍속문화」 『일본학(7)』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pp.209-214
- 정우택(2008) 「일본 사국지역 조선조 전기 불화 조사 연구」 『동악미술사학(9)』 동악미술사학회, pp.57-89
- 정희득(1989) 「해상록(1)」 『해행총재(8)』 민문고, p.227
- 大方町史改訂編纂委員会(1994) 『大方町史』 大方町, pp.208-209
- 金達壽,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11) -阿波, 土佐(徳島県, 高知県)-(2)」 『季刊 三千里(40)』 (三千里社. 1984年) p.222
- 高知県高等学校教育研究会歴史部会(2006) 『高知県の歴史散歩』, p.252,
- 貫井正之(1996) 『豊臣政権の海外進出と朝鮮義兵研究』 青木書店, p.290
- 四国新聞社編(1980) 『讃岐人物風景』 四国新聞社, p.161
- 梶原塩水(1976) 『古今讃岐名勝図会』, 歴史図書社, p.336
- 高松市弦打小学校 PTA(1979) 『弦打風土記』, p.17
- 寺崎宗俊(1993) 『肥前名護屋城の人々』 佐賀新聞社, p.213
- 内藤篤輔(1976) 『文禄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p.740
- 尹達世(2003) 『四百年の長い道』 リーブル出版, p.18
- 平尾道雄外 4人 『土佐之国史料類纂 皆山集 (第5卷) -歴史編-』 (高知県立図書館. 1976年) p.40

要 旨

This study is about the Korean captiv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Kagawa, Dokushima, Kouchi, Japan. At that time, local lords who were commanded by Hideyoshi, they plundered Korean animals, plants, cultural assets, Korean people. From this reason, there were a wide variety of Korean class people lived in Shikoku area. There wer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Social classes. Firstly, There are different attitude toward the returning to native country. YangBan(aristocratic class) were more eager to going back to Korea due to social and economic rights in Korea. Secondly, YangBan had been exchange letters with other inhabitance. In other words, they were having a social network, and trading informations. Thirdly,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Korean culture introduce. For example, KyungDong introduced Medical practice, ChosenKokujyo introduced weaving technique to the local area. From this kind of forced personal exchange, contributed to cultural diffusion. Lastly, There were local Japanese people who were sympathize with the Korean prisoners and honoring their souls. Especially honoring process were appeared more towards woman prisoners. For example, Ozoe and Kozoe in Kagawa, Chousenkokujyo in Kouchi, Chousenjyo in Dokushima. For these captive Korean, Monuments and information board were built, and memorial events were held by local people. Personally I hope that this movement will contribute to prevent repetition of Korea-Japan historical tragic event.

키워드 : Japanese Invasion of Korea, Korean captive, Kagawa, Dokushima, Kouchi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